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295-325
<https://doi.org/10.29212/mh.2025..135.2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13년 高隋 전쟁과 隋의 병사·물자 동원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 목 차
1. 서론
 2. 효과(驍果)의 신설과 징발
 3. 1차 고구려 원정 손실과 수습
 - 가. 동원 가능 인력의 감소
 - 나. 무마(武馬)·무기의 손실과 복구
 4. 군수 물자 수송 계획과 실상
 5. 결론

초 록 이 논문은 613년 고구려-수나라 전쟁, 즉 양제(楊帝)의 제2차 고구려 침략의 전쟁 준비 양상을 분석한 글이다. 613년의 고구려-수나라 전쟁이 612년에 살수 대첩 패배 이후 수나라 군대가 회군한 후 바로 시작되었다. 612년에 여양(黎陽)·낙양(洛陽)·낙구(洛口)·태원(太原) 등 창고의 곡물을 망해돈(望海頓)으로 옮겼다. 613년에 백성들을 징발(召募)하여 효과(驍果)로 편성하였다. 2차 고구려 원정 때도 병사와 궤운자(饋運者)를 포함하면 약 3,928,193구(口) 가운데 2,604,900명을 추가로 동원해야 했다.

이는 조세·군역·요역을 부담할 수 있는 성인 남성(課丁)의 67.2%에 해당하며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나라가 241,840마리의 말과 무기를 새로 채워 넣어야 했지만 제2차 고구려 침략 전인 대업 9년 정월에 백유망(白榆妄=白瑜娑)가 농우(隴右) 지역의 목마(牧馬)를 약탈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제2차 고구려 침략 당시 수나라 병사들이 군마(軍馬)의 상실, 도적의 창궐, 군량 책임자 양현감(楊玄感)의 군량 수송 작업 지연 등 군수 물자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와 싸웠다. 그러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키자 더 버티지 못하고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 613년 고구려-수나라 전쟁, 호과(驍果), 여덟 마리의 타마(八駄), 양현감(楊玄感)의 군량 수송 지연, 양현감의 반란

1. 서론

612-614년 고구려-수나라 전쟁, 즉 수 양제의 고구려 침략이 중국 황제가 외국을 직접 공격하였으며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던 드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¹⁾ 그러나 살수대첩에서 30만 명이 거의 전멸한 612년의 전쟁과 달리 613년의 전쟁이 각각 양현감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수나라 병사들이 회군하면서 간단히 끝났다. 그리고 전쟁이나 군수 물자 징발과 관련된 사료가 적기 때문에 612년 제1차 고구려 원정보다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국 학계에서 613년의 고구려-수나라 전쟁 당시 수나라 병사들의 병력을 30만 명으로 추정하거나²⁾ 612년 전쟁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³⁾ 그러나 이는 『수서』만 분석한 한국 학계의 오류이다. 한 중국학자가 “세 차례 황제의 요택(遼澤) 동정(東征) 때 모두 백여만 무리를 동원하였고, 궤운자(饋運者)는 그 배였다”⁴⁾라는 『통전』 권7 「식화」 7 역대성쇠호구(歷代盛衰戶口) 조 기사를 근거로 제1차 고구려 침략 때와 같았다고 주장하였다. 수 양제가 3차에 걸친 고구려 침략에 동원한 병력은 340만 명이었고 백성(饋運者)은 약 680만 명이었으며, 양자를 합하면 1,020만 명이였다.⁵⁾ 이 주장에 따르면 양제가 제2차와 3차 고

1) 北魏의 道武帝와 太武帝 등이 북아시아의 柔然과 高車 등을 원정한 사례가 있지만, 통일왕조에 국한하면, 隋煬帝가 주변국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 첫 번째 皇帝였다.

2) 서인한, 『동북아의 왕자를 꿈꾸다』, 플래닛미디어, 2009, 221쪽.

3) 정동민, 「고구려와 수 전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8, 129쪽.

4) 『通典食貨典』(杜佑撰, 王文錦 등 點校, 中華書局, 1988) 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 148쪽, “又三駕東征遼澤, 皆興百餘萬眾, 饋運者倍之”

5) 張文才, 『隋代軍事史』(中國軍事通史 第九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37-140쪽.

구려 원정 때도 제1차와 동일한 113만 3,800명을 동원하였다. 당 후기에 편찬되어 당시 남아있던 수나라 때의 자료를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전』의 기사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병력 이외에 무기나 군량의 징발과 운송 문제가 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⁶⁾

선행연구에서 병력이나 운송인원 손실의 보충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612년 전쟁⁷⁾에서 발생한 수나라 병사의 손실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고구려 원정을 위한 통계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 또 효과(驍果) 등 병력의 징발 지역을 분석하면 전쟁 준비를 위한 백성들의 부담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611-612년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민부(民夫)의 수, 612년에 운송에 동원된 인력의 요역 면제 기사 등을 단서로 613년과 614년 병력 및 물자 동원 양상을 조감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학계의 관심에서 벗어난 613년 고구려-수나라 전쟁, 즉 수 양제의 제2차 고구려 침략을 전쟁 준비와 군수 물자 징발 및 수송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해석하려고 한다.

2장에서 효과의 편성과 징발 지역을 검토한다. 이어서 3장에서 군수 물자의 징발과 운송 분석을 위한 전 단계로 전 해인 612년 1차 고구려 원정 당시 수나라 병사의 손실을 인구 통계(가 절)와 무마(武馬) 및 무기(나 절)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4장에서 613년 고구려-수나라 전쟁의 군수 물자 조달과 수송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613년

6) 현재까지 발굴된 墓誌銘의 高隋 전쟁도 612년 참전 기록만 남아 있다(拜根興, 「墓誌所見隋煬帝親征高句麗」,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8-1, 2019, 149왼쪽-153오른쪽).

7) 612년 高隋 전쟁 당시 隋의 군수 물자 동원은 최진열, 「612년 고수 전쟁 전후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물자 동원」, 『한국연구』 18, 2024, 236왼쪽-251오른쪽 참조.

제2차 고구려 원정의 물자 조달 및 수송 때문에 발생한 백성들의 봉기와 그 영향을 살펴본다.

2. 효과(驍果)의 신설과 징발

양제가 대업 9년 정월 정축일(613. 1. 28)에 전국의 병력을 징집하고 백성을 징집(召募)하여 효과(驍果)로 편성하여 탁군(涿郡)에 모이라고 명령하였다. 신묘일(613. 2. 11)에 절충(折衝)·과의(果毅)·무용(武勇)·웅무(雄武) 등 낭장관(郎將官)을 두어 효과를 거느리라고 지시하였다.⁸⁾ 여기에서 백성들을 효과로 징집(召募)한 사실이 주목된다. 양제가 백성들을 효과라는 군인으로 징집한 이유는 병력 상실 때문이었다.⁹⁾ 612년 고구려 침략 당시 평양성을 급습하기 위해 보내진 9군(軍)에 속한 305,000명 가운데 살수 대첩에서 패하여 요동성에 돌아온 군인이 2,700명에 불과했다.¹⁰⁾ 따라서 302,300명의 병력 손실이 발생하였다.¹¹⁾ 또 해로로 패수를 거슬러 올라가 평양성 안으로 쳐들어갔던 내호아(來

8)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正月條, 83-84쪽, “九年春正月丁丑, 徵天下兵, 募民為驍果, 集于涿郡……辛卯, 置折衝·果毅·武勇·雄武等郎將官, 以鎮驍果” 이하 정사료와 『資治通鑑』은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9) 張文才, 『隋代軍事史』, 77-78쪽. 이하 驍果의 성격과 존재양태는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118-127쪽; 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岩波講座世界歴史』 5, 1970; 谷川道雄, 『西魏北周隋唐政權と府兵制』, 『增補 隋唐帝國形成史論』, 筑摩書房, 1998(原載 唐代史研究會 編, 『中國律令制の發展とその國家社會との關係-周邊諸之役の情況をふくんで-』, 汲古書院, 1986), 429쪽 참조.

10) 『隋書』 卷61 「宇文述傳」, 1466쪽, “初, 渡遼軍三十萬五千人, 及還至遼東城, 唯二千七百人”

11) 宇文述이 지휘한 9軍의 305,000명 가운데 薩水대첩에 패하여 遼東城에 돌아온 군인이 2,700명에 불과했으므로(『隋書』 卷61 「宇文述傳」, 1466쪽, “初, 渡遼軍三十萬五千人, 及還至遼東城, 唯二千七百人”) 302,300명이 전사했거나 高句麗軍에 생포되었다.

護兒)의 정병 4만 명 가운데 수천 명만 살아서 돌아왔다.¹²⁾ 따라서 최소 3만 5천 명의 병력 손실이 있었다. 사서에서 고구려의 다른 성을 공격한 수나라 병사의 피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37,300명의 병력 손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희귀한 기록이다. 효과가 33여만 명의 병력 손실을 보충하고 제2차 고구려 침략을 위해 징집한 모병이었다.

효과가 16위(衛)·부(府) 가운데 좌우 비신부(左右備身府)에 배속되었으며 절충낭장(折衝郎將)·과의낭장(果毅郎將)과 좌우 우무부(左右雄武府)의 웅무낭장(雄武郎將)이 지휘하였다.¹³⁾ 좌우 비신부(左右備身府)가 황제의 경호를 담당하는 친위부대이므로 효과가 부명과 다른 계통이며 서로 마찰·긴장 관계에 있었거나¹⁴⁾ 부명의 해체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⁵⁾ 형식상 효과가 양제의 친위부대에 배속되었다고 해도 613년 고구려-수나라 전쟁에 참여하였고¹⁶⁾ 617년 반란을 일으킨 이연의 군대를 막았던 굴돌통(屈突通)이 요동병과 효과 등을 지휘하였던 사실에서 양제가 머물렀던 강도(江都) 이외에 장안과 그 주변에도 효과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동도 낙양에도 효과가 배치되었을 것이다.¹⁷⁾ 따라서

12)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大業八年六月己未條, 5662-5663쪽, “右翊衛大將軍來護兒帥江·淮水軍, 舳舻數百里, 浮海先進, 入自涇水, 去平壤六十里, 與高麗相遇, 進擊, 大破之. 護兒欲乘勝趣其城, 副總管周法尚止之, 請俟諸軍至俱進. 護兒不聽, 簡精甲四萬, 直造城下. 高麗伏兵於羅郭內空寺中, 出兵與護兒戰而偽敗, 護兒逐之入城, 縱兵俘掠, 無復部伍. 伏兵發, 護兒大敗, 僅而獲免, 士卒還者不過數千人. 高麗追至船所, 周法尚整陳待之, 高麗乃退. 護兒引兵還屯海浦, 不敢復留應接諸軍.”

13) 『隋書』 卷28 「百官志」下, 800-801쪽, “左右領左右府, 改為左右備身府, 各置備身郎將一人. ……有折衝郎將, 各三人, 正四品, 掌領驍果. 又各置果毅郎將三人以貳之, 從四品. 其驍果, 置左·右雄武府雄武郎將, 以領之. 以武勇郎將為副員, 同鷹揚·鷹擊.”

14)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118-127쪽.

15) 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谷川道雄, 「西魏北周隋唐政權と府兵制」, 429쪽.

16) 『隋書』 卷64 「沈光傳」, 1513쪽, “大業中, 煬帝徵天下驍果之士以伐遼左, 光預焉. 同類數萬人, 皆出其下. 光將宿衛在所, 賓客送至霸上者百餘騎.”

17) 氣賀澤保規, 「驍果制考-隋煬帝期兵制の一側面-」,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舍, 1999(原載 「驍果制考-隋煬帝期兵制の一側面-」, 『鷹凌史學』 11, 1986), 246쪽.

효과가 친위부대인 좌우 비신부에 소속되어도 부병처럼 전쟁에 종군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등 다양한 지역을 지키는 역할도 맡았다.

수 양제가 살해되기 직전 강도로 양제를 따라간 효과의 다수가 관중 사람이라는 기록¹⁸⁾에서 수도 대흥성과 주변의 관중 지역의 남성들이 주로 효과로 징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제를 살해한 우문화급이 복상하여 이밀과 싸울 때 장수 진지략이 영남 효과 1만여 인, 장동아가 강동 효과 수천 인을 이끌고 이밀에게 항복하였다.¹⁹⁾ 이 기사에서 장강 하류의 남쪽 지역인 강동과 현재의 광둥·광서·북베트남 등지에 해당하는 영남 지역에서도 효과가 징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나라 말기에 교지태수에 임명되었던 구화(丘和)가 강도에서 돌아온 효과들로부터 수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소선(蕭銑)에 항복했다는 기사²⁰⁾에서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 있었던 교지군에서도 효과로 차출된 남성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나라 말기의 상황이지만, 효과를 처음으로 징집한 613년에도 전국에서 군인을 징집했음을 알 수 있다.

수나라 때 영남에 해당하는 남해군에 37,482호,²¹⁾ 용천군이 6,420호,²²⁾ 의안군에 2,066호,²³⁾ 고량군에 9,917호,²⁴⁾ 신안군

18) 『隋書』卷85「宇文化及傳」, 1888쪽, “是時李密據各口, 煬帝懼, 留淮左, 不敢還都, 從駕驍果多關中人, 久客羈旅, 見帝無西意, 謀欲叛歸。”

19) 『隋書』卷35「宇文化及傳」, 1891쪽, “元文都推越王侗為主, 拜李密為太尉, 令擊化及, 密遣徐勣據黎陽倉, 化及渡河, 保黎陽縣, 分兵圍勣, 密壁高其, 與勣以烽火相應, 化及每攻倉, 密輒引兵救之, 化及數戰不利, 其將軍于弘達為密所擒, 送於侗所, 饒烹之, 化及糧盡, 渡永濟渠, 與密大戰於童山, 遂入汲郡軍糧, 又遣使掠東郡吏民以資米粟, 王軌怨之, 以城請李密, 化及大懼, 自汲郡將率眾圖以化諸州, 其將東智略率嶺南驍果萬餘人, 張童兒率江東驍果數千人, 皆叛歸李密。”

20) 『舊唐書』卷59「丘和傳」, 2325쪽, “煬帝從之, 遣和為交趾太守, 既至, 撫者豪傑, 甚得蠻夷之心, ……會舊驍果從江都還者, 審知隋滅, 遂以州從銑。”

21) 『隋書』卷31「地理志」下揚州南海郡條, 880쪽, “統縣十五, 戶三萬七千四百八十二。”

22) 위와 같음, 龍泉郡條, 881쪽, “統縣五, 戶六千四百二十。”

23) 위와 같음, 義安郡條, 881쪽, “統縣五, 戶二千六十六。”

24) 위와 같음, 高涼郡條, 882쪽, “統縣九, 戶九千九百一十七。”

에 17,787戶,²⁵⁾ 영희군에 14,319戶,²⁶⁾ 창오군에 4,578戶,²⁷⁾ 시안군에 54,517戶,²⁸⁾ 영평군에 34,049호,²⁹⁾ 울림군에 59,200호,³⁰⁾ 합포군에 28,690호,³¹⁾ 주애군에 19,500호,³²⁾ 영월군에 12,670호,³³⁾ 교지군에 30,056호,³⁴⁾ 구진군에 16,135호,³⁵⁾ 일남군에 9,915호,³⁶⁾ 비경군에 1,815호,³⁷⁾ 해음군에 1,100호,³⁸⁾ 임읍군에 1,220戶³⁹⁾가 있었다. 영남 효과 1만여 명을 징발한 19군의 호수 총수 361,436호 가운데 약 36호마다 1명꼴로 효과를 징발하였다. 비율로 약 2.8%에 해당하므로 영남 19군에서 부담하기 무리 없는 수준이었다. 강동에 해당하는 단양군에 24,125호,⁴⁰⁾ 선성군에 19,979호,⁴¹⁾ 비릉군에 17,599호,⁴²⁾ 오군에 18,377호,⁴³⁾ 회계군에 20,271호,⁴⁴⁾ 여항군에 15,380호,⁴⁵⁾ 신안군에 6,164호,⁴⁶⁾ 동양군에 19,805호,⁴⁷⁾ 영가군에 10,542호,⁴⁸⁾

25) 위와 같음, 信安郡條 882쪽, “統縣七, 戶一萬七千七百八十七.”

26) 위와 같음, 永熙郡條 882쪽, “統縣六, 戶一萬四千三百一十九.”

27) 위와 같음, 蒼梧郡條 883쪽, “統縣四, 戶四千五百七十八.”

28) 위와 같음, 始安郡條 883쪽, “統縣十五, 戶五萬四千五百一十七.”

29) 위와 같음, 永平郡條 883쪽, “統縣十一, 戶三萬四千四十九.”

30) 위와 같음, 鬱林郡條 884쪽, “統縣十二, 戶五萬九千二百.”

31) 위와 같음, 合浦郡條 884쪽, “統縣十一, 戶二萬八千六百九十.”

32) 위와 같음, 珠崖郡條 885쪽, “統縣十, 戶一萬九千五百.”

33) 위와 같음, 寧越郡條 885쪽, “統縣六, 戶一萬二千六百七十.”

34) 위와 같음, 交趾郡條 885쪽, “統縣九, 戶三萬五十六.”

35) 위와 같음, 九眞郡條 885쪽, “統縣七, 戶一萬六千一百三十五.”

36) 위와 같음, 日南郡條 886쪽, “統縣八, 戶九千九百一十五.”

37) 위와 같음, 比景郡條 886쪽, “統縣四, 戶一千八百一十五.”

38) 위와 같음, 海陰郡條 886쪽, “統縣四, 戶一千一百.”

39) 위와 같음, 林邑郡條 886쪽, “統縣四, 戶一千二百二十.”

40) 위와 같음, 丹陽郡條 876쪽, “統縣三, 戶二萬四千一百二十五.”

41) 위와 같음, 宣城郡條 877쪽, “統縣六, 戶一萬九千九百七十九.”

42) 위와 같음, 毗陵郡條 877쪽, “統縣四, 戶一萬七千五百九十九.”

43) 위와 같음, 吳郡條 877쪽, “統縣五, 戶一萬八千三百七十七.”

44) 위와 같음, 會稽郡條 878쪽, “統縣四, 戶二萬二百七十一.”

45) 위와 같음, 餘杭郡條 878쪽, “統縣六, 戶一萬五千三百八十.”

46) 위와 같음, 新安郡條 878쪽, “統縣三, 戶六千一百六十四.”

건안군에 12,420호,⁴⁹⁾ 수안군에 7,343호,⁵⁰⁾ 파양군에 10,102호,⁵¹⁾ 임천군에 10,900호,⁵²⁾ 여릉군에 23,714호,⁵³⁾ 남강군에 11,168호,⁵⁴⁾ 의춘군에 10,116호,⁵⁵⁾ 예장군에 12,021호⁵⁶⁾가 있었다. 강동 17군의 호수는 모두 250,206호였다. 강남 효과 수천 명의 최소 단위를 3천 명이라고 보면 약 83-84호마다 1명(1.2%)을 징집하므로 강동 17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양제가 제1차 고구려 침략에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약 30만 명을 보충하려면 30만 명의 효과를 징집해야 했다. 현재 사서로 효과의 총수를 알 수 없는데 한 학자가 수말에 10만 명이 상이라고 추측하였다.⁵⁷⁾ 양제가 613년에 징집한 효과의 수도 10만이라면 상실한 병력의 1/3만 보충한 셈이다. 나머지 병사들은 다른 명목으로 징집해야 했을 것이다.

47) 위와 같음, 東陽郡條 878쪽, “統縣四, 戶一萬九千八百五.”

48) 위와 같음, 永嘉郡條 879쪽, “統縣四, 戶一萬五百四十二.”

49) 위와 같음, 建安郡條 879쪽, “統縣四, 戶一萬二千四百二十.”

50) 위와 같음, 遂安郡條 879쪽, “統縣三, 戶七千三百四十三.”

51) 위와 같음, 鄱陽郡條 879쪽, “統縣三, 戶一萬一百二.”

52) 위와 같음, 臨川郡條 879쪽, “統縣四, 戶一萬九百.”

53) 위와 같음, 廬陵郡條 880쪽, “統縣四, 戶二萬三千七百一十四.”

54) 위와 같음, 南康郡條 880쪽, “統縣四, 戶一萬一千一百六十八.”

55) 위와 같음, 宜春郡條 880쪽, “統縣三, 戶一萬一百一十六.”

56) 위와 같음, 豫章郡條 880쪽, “統縣四, 戶一萬二千二十一.”

57) 氣賀澤保規, 「驍果制考-隋煬帝期兵制の一側面-」, 246쪽.

3. 1차 고구려 원정 손실과 수습

가. 동원 가능 인력의 감소

611년 1차 고구려 원정 이전에 이미 운송 작업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아래의 인용문에 잘 표현되었다.

“또 민부(民夫)를 징발하여 미(米)를 운반하여 노하(瀟河)·회원(懷遠) 2진(鎭)에 저장하도록 하였으나, 그곳으로 간 수레와 소가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고 사망한 사졸이 절반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경가(耕稼)의 때를 놓쳐 전주(田疇)가 대부분 거칠어졌다. 게다가 기근이 겹쳐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특히 동북 변경이 더욱 심하여 1말(斗)의 미(米) 가격이 수백 전에 해당하였다. 운반하는 미가 조약하면 백성들에게 곡물을 사서 배상하도록 하였다. 또 녹거부(鹿車夫) 60여만을 징발하여 2명이 함께 미 3석을 운반하도록 하였으나 길이 험하고 멀어서 죽히 후량(餽糧)을 충당할 수 없었으며 진에 도착하면, 운반할 식량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죄를 두려워하여 도망갔다.”⁵⁸⁾

위의 인용문에서 이미 611년에 운송을 맡은 백성 절반이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⁵⁹⁾ 1차 고구려 원정 때 물자 수송을 맡은 궤운자가 군사 113만 3,800명의 배였으므로,⁶⁰⁾ 2,267,600명이었

58)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條, 5655쪽, “又發民夫運米, 積於瀟河·懷遠二鎭, 車牛往者皆不返, 士卒死亡過半, 耕稼失時, 田疇多荒, 加之饑饉, 穀價踊貴, 東北邊尤甚, 斗米直數百錢, 所運米或相惡, 令民糴而償之, 又發鹿車夫六十餘萬, 二人共推米三石, 道途險遠, 不足充餽糧, 至鎭, 無可輸, 皆懼罪亡命.”

59) 최진열, 「612년 고수 전쟁 전후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물자 동원」, 243왼쪽-243오른쪽.

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절반이 사망했으므로 113만 3,800명의 궤운자가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녹거부(鹿車夫) 60여만 명 모두 도망갔다. 위의 인용문이 옳다면 당시 운송에 징발된 백성 1,733,800명이 죽거나 도망갔다. 이는 수나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운송 요역을 맡은 인력 1,733,800명이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609년 수나라의 호구 8,907,546호와 46,019,956구⁶¹⁾에 『통전』의 호구와 과정(課丁) 통계에서 과정이 전체 인구의 15.5%였음⁶²⁾을 적용하면 조세와 균역, 요역을 부담할 수 있는 과호(課戶)가 7,133,093구였다. 대업 5년과 9년의 인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운송 과정에서 죽거나 도망친 1,733,800명과 살수대첩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약 337,300명을 제외하면 5,061,993구였다.⁶³⁾ 대업 7년보다 29% 적은 성인 남성 가운데 군인과 운송 요역을 맡을 궤운자를 징발해야 했다. 이는 남아 있는 성인 남성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 양제가 1차 고구려-수나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대업 8년 사월 병신일⁶⁴⁾에 사면 조서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군사에 이바지한 여러 군(諸郡)의 백성을 1년, 탁군까지 온 역정(驛丁)과 부장(夫匠)을 2년, 임유관(臨渝關) 서쪽까지 동원된 자를 3년, 유성(柳城) 서쪽까지 징발된 자를 5년, 통정진(通定鎮) 서쪽까지 도착한 자를 7년, 도요진(渡遼鎮)을 건넌 자를 10년씩 각

60)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正月條, 81-82쪽, “總一百一十三萬三千八百, 號二百萬, 其餽運者倍之”

61) 『隋書』 卷29 「地理志」上, 808쪽, “五年, 平定吐谷渾, 更置四郡, 大凡郡一百九十, 縣一千二百五十五, 戶八百九十萬七千五百四十六, 口四千六百一萬九千九百五十六”

62) 최진열, 「648년 唐太宗의 高句麗 정복 준비와 그 실상」, 『군사연구』 156, 2023, 150-151쪽. 최진열, 「645년 高隋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129-132쪽.

63) 이는 613년 高隋 전쟁 직전 인구가 大業 5년(909)과 같다는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이다.

64) 大業 8년 四月에 丙申일이 없고 五月에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로 표기하지 않았다.

각 면제하였다.⁶⁵⁾ 이 기사에 통정진이 등장하는데, 대업 8년 삼월 갑오일(612. 4. 20)에 요수를 건너 요동성을 포위하였다.⁶⁶⁾ 이때 이미 요수를 건넜으므로 요수 서쪽의 무려라(武厲羅) 등에 통정진을 설치했다면 한 달 후에 내린 조서에 이해에 신설한 통정진의 출현이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탁군, 임유관, 유성, 통정진, 도요진⁶⁷⁾까지 물자를 운반하는데 동원된 정역(丁役)과 무기 등을 만드는 장인들에게 이동한 거리에 따라 면제한 점이 주목된다. 원문의 “복(復)”이 요역 또는 요역·조세 면제를 뜻하는 동사이다.

먼저 “복”을 요역 면제로 해석하면, 물자 수송에 동원되었던 백성들과 역정(驛丁)이나 각종 기계를 만들었던 장인들의 요역 면제가 1년에 요역에 동원되는 법정 동원 기간인 20일을 초과했기 때문일 것이다.⁶⁸⁾ 즉 1년 요역 면제는 20일, 2년은 40일, 3년, 5년, 7년, 10년은 각각 60일, 100일, 140일, 200일 동안 물자 수송 등에 동원된 대가였을 것이다.⁶⁹⁾ 탁군부터 요수까지

65) 『冊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卷83 「帝王部」83 赦有2, 918쪽, “八年四月丙申詔曰: ‘……其諸郡供軍事者, 並給復一年, 其所役丁夫匠至涿郡者, 復二年. 至臨渝關已西者, 復三年. 至柳城已西者, 復五年. 至遼定鎮已西者, 復七年. 至遼遼鎮者, 復十年. ……’”

66)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三月條, 82쪽, “三月辛卯, 兵部尚書·左候衛大將軍段文振卒. 癸巳, 上御師. 甲午, 臨戎于遼水橋. 戊戌, 大軍為賊所拒, 不果濟. 右屯衛大將軍·左光祿大夫麥鐵杖, 武賁郎將錢士雄·孟金叉等, 皆死之. 甲午, 車駕遼遼. 大戰于東岸, 擊賊破之. 進軍遼東. 乙未, 大頓, 見二大鳥, 高丈餘, 皤身朱足, 遊水自若. 上異之, 命圖寫, 并立銘頌.”

67) “至遼遼鎮者”는 “遼水を 건너 鎮에 이른 자”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문맥상 ‘至’字 뒤에 지명이 위치하므로 遼遼鎮을 지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 그러나 史書에 遼遼鎮이 언급되지 않아 鎮의 이름으로 단정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한다.

68) 隋文帝는 開皇 3년에 요역을 20일로 줄였다(『隋書』卷24 「食貨志」, 681쪽, “開皇三年正月, 帝入新宮. 初令軍人以二十一成丁. 減十二番每歲為二十日役, 減關得一足為二丈”). 丁에게 부과된 1년 20일의 요역은 唐代에도 계승되었다.

69) 이는 1년에 동원된 20일을 초과해서 운송 요역으로 20일을 더 보냈다면 다음 해에 20일의 요역을 면제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보행이나 나귀를 이용하여 물자를 수송하면 약 약 34일,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를 수송할 경우 약 57일 걸렸으므로,⁷⁰⁾ 왕복 최소 114일이 필요했다. 따라서 612년에 140일 이상 동원되어 5년 이상 면제받은 사람들이 고구려와의 국경 또는 고구려 영토 안까지 물자를 운송했을 것이다. 만약 “복”을 조세와 요역의 면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들은 50일 이상 동원되었음을 뜻한다.⁷¹⁾ 이에 따르면, 1년 면제자가 50일, 2년은 100일, 3년은 150일, 5년은 250일, 7년은 350일, 10년은 500일을 군수 물자 운송의 요역으로 보냈다.

어떤 경우이건 양제의 2차 고구려 침략 때 작년에 동원되어 최소 1년 이상 면제받은 약 226만 명의 역정(役丁)과 부장(夫匠)을 동원할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운송 도중에 죽었으므로 면제받은 수가 절반인 113만 3,800명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계산한 남은 성인 남성 5,061,993구에서 1,133,800구를 빼면 약 3,928,193구가 남는다. 즉 약 3,928,193구 가운데 인부를 징발해야 했다.

그러나 봉기와 유망으로 호적에서 이탈하여 수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백성들이 존재하였다. 이미 612년에 시작된 백성들의 봉기는 제2차 고구려 침략이 진행된 613년에 더욱 확산되었다.⁷²⁾

70) 최진열,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152-154쪽; 최진열, 「645년 高隋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137-139쪽.

71) 唐代에 5일 추가 요역에 동원되면 調 30일 추가 동원되면 租調를 모두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唐六典』 卷3 『尚書戶部』, 76쪽, “有事而加役者, 旬有五日免其調, 三旬則租·調俱免”). 이에 따르면, 50일 동안 요역에 동원되면 租庸調를 모두 면제받았다. 현재 隋의 律令이 남아 있지 않지만, 唐이 隋의 律令을 계승했다고 보면 이 조항은 隋代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72) 大業 9년 이후 農民 봉기의 원인과 분석은 王籙, 「關於隋末農民大起義的發源地問題」, 『王籙隋史論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原載 『光明日報』 1953. 7.11), 10-12쪽 및 黃惠賢, 「隋末農民起義武裝淺析」, 『魏晉南北朝隋史研究與資料』,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10 참조.

〈표 1〉 대업 7년 십이월-제2차 고구려 원정군의 회군 이전(대업 9년 유월) 반란 표

연도	날짜	인물, 집단	숫자	활동 지역
大業 7년(611)	十二月	鄒平民 王薄	10餘萬	長白山(근거지), 齊郡(齊州)와 濟北郡(濟州)(약탈지)
	十二月	劉霸道 등 阿舅賊	10餘萬	平原郡 동쪽의 豆子航
	十二月	高士達		渤海郡, 清河郡 境内
		竇建德	200인→1萬餘人	漳南縣(?)
		孫安祖		
	張金稱			
大業 9년(613)	正月 壬午	杜彥冰·王潤 等		平原郡
	正月 乙未	李德逸 등 阿舅賊	數萬	山東
	正月 乙未	靈武 白榆妄		隴右
	二月 己未	濟北郡의 韓進洛	數萬	濟北郡(?)
	三月 丙子	濟陰人 孟海公	數萬	濟陰郡(?)
	三月 庚子	郭方預	3만	北海郡
	五月己卯	濟北 사람 甄寶車	1만여 인	濟北郡(?)

* 출처 :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條, 5656쪽 및 5656-5657쪽;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正月條, 83-84쪽;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二月己未條, 84쪽;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三月條, 84쪽;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五月己卯條, 84쪽.

양제가 제1차 고구려 침략을 감행하기 전에 이미 대업 7년 십이월(612. 1. 9-612. 2. 6)에 왕박(王薄), 유패도(劉霸道), 고사달(高士達), 두건덕(竇建德), 손안조(孫安祖), 장금칭(張金稱)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근거지 또는 약탈, 공격 지역이 황하 하류의 북안에 있는 평원군과 발해군, 청하군, 남안의 제군(齊郡)과 제북군 등지였고 활동했던 지역이 해안가의 5군 일대였다. 이 5군의 호수는 823,358호이며, 전체 호수 9,070,414호⁷³⁾

의 9.1%에 해당하였다.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약 21여만 명이었으므로 이 5군 호수의 25.5%였다. 이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5군 이외의 타향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적은 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대업 9년(613) 정월에서 오월까지 두언빙(杜彦冰)·왕윤(王潤), 이덕일(李德逸) 등 아구적(阿舅賊), 백유망(白榆妄), 한진락(韓進洛), 맹해공(孟海公), 곽방예(郭方預), 견보거(甄寶車) 등이 봉기하였다. 수만의 최소값인 3만으로 계산하면 613년 봉기에 참여한 도적들은 약 13만여 명이었다.

도적 34만여 명 가운데 15.5%가 과정(課丁)이라고 가정하면 52,700명이다. 앞에서 계산한 약 3,928,193구 가운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52,700명을 제외하면 조세와 요역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약 3,875,493구로 줄어들었다. 사서에 2·3차 고구려 침략에 동원된 수나라 병사의 총수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세 차례 황제의 요택 동정 때 모두 백여만 무리를 동원하였고, 궤운자가 그 배였다”⁷⁴⁾라는 『통전』 권7 「식화」 7 역대성쇠호구조 기사를 근거로 제1차 고구려 침략 때와 같았다는 주장이 있다. 2차와 3차 고구려 원정 때도 113만 3,800명을 동원했다는 뜻이다.⁷⁵⁾ 『통전·식화전』에 기록이 남아있는 한 현재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2차 고구려 원정 때도 평양성 전투와 살수대첩에서 죽거나 돌아오지 못한 337,300명을 보충해야 했고 여전히 113만 3,800명의 배인 궤운자를 포함하면 약 3,875,493구 가운데 2,604,900명을 동원해야 했다. 이는 전체 성인 남성의 67.2%에 해당한다. 이는 백성들에게 큰 부

73)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73쪽, 甲表22 隋各州郡戶數及每縣平均戶數

74) 『通典食貨典』卷7 「食貨」 7 歷代盛衰戶口, 148쪽.

75) 張文才, 『隋代軍事史』, 137-140쪽.

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 무마(武馬) · 무기의 손실과 복구

당대 절충부(折衝府) 위사(衛士)처럼 수나라 때의 응양부(鷹揚府) 위사(衛士)⁷⁶⁾들도 10명당 8마리의 말이 운송했는데,⁷⁷⁾ 별동대 30만 5천 명 가운데 2,700명만 돌아왔으므로 302,300명이 가지고 간 팔타(八馱), 즉 모두 241,840마리의 말도 고구려 군사들에게 생포되거나 죽어서 잃어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수나라 군대가 241,840마리의 운송용 말을 새로 징발해야 했다. 수나라가 말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실마리가 『수서』 「식화지」에 기록되었다.

“[대업] 9년에 또 조서를 내려 관중(關中)의 부인(富人)에게 과세하였
다. 그들의 자산을 조사하여 려(驢)를 납부하게 하여 이오(伊吾) · 하

76) 隋初에 十二衛가 거느린 府兵의 軍人 명칭은 원래의 “侍官”에서 “衛士”로 바꾸었다. 각 衛府의 병사들 호칭이 달랐다. 예컨대 左右翊衛의 병사는 驍騎, 左右驍衛의 병사는 豹騎, 左右武衛의 병사는 熊渠, 左右屯衛의 병사는 羽林, 左右禦衛의 병사는 射聲, 左右候衛의 병사는 伏飛로 칭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칭하여 ‘衛士’라고 하였다(『隋書』 卷28 「百官志」下 隋百官條, 800쪽, “十二衛, 各置大將軍一人, 將軍二人, 總府事, 并統諸鷹揚府. …… 其軍士, 左右衛所領名爲驍騎, 左右驍衛所領名豹騎, 左右武衛所領名熊渠, 左右屯衛所領名羽林, 左右禦衛所領名射聲, 左右候衛所領名伏飛, 而總號衛士.”). 따라서 鷹揚府 소속 병사를 본문에서 ‘衛士’로 표기한다.

77) 『隋書』 「食貨志」에서 大業 9년에 八馱를 六馱로 바꾼 것처럼 기록했지만 그 문장 앞에 “及玄感平”이란 구절이 있기 때문에(『隋書』 卷24 「食貨志」, 688쪽, “九年, 詔又課關中富人, 計其貲產出驢, 往伊吾·河源·且未運糧 …… 及玄感平, 帝謂侍臣曰: ‘玄感一呼而從者如市, 益知天下人不欲多, 多則爲賊, 不盡誅, 後無以行勸’ 乃令裴彥明其黨與, 詔郡縣統殺之, 死者不可勝數, 所在驚駭. 舉天下之人十分, 九爲盜賊, 皆盜武馬, 始作長槍, 攻陷城邑. 帝又命郡縣置督捕以討賊, 益遣募人征遠, 馬少不充八馱, 而許爲六馱. 又不足, 聽半以驢充”) 八馱를 六馱로 바꾼 것은 제3차 高句麗 침략을 위한 준비였다. 唐前期 10명으로 구성된 折衝府의 최소 병력 단위인 火에 8마리의 말(八馱)이 배치되었다(최진열, 「645년 高句麗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116쪽). 이는 隋代의 제도를 이어받았음을 뜻한다.

원(河源)·차말(且末)에 식량을 운반하도록 하였다. 많은 자는 수백 마리를 바쳤는데 한 마리당 가격은 1만여 전에 이르렀다.⁷⁸⁾

양제가 관중의 부유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오·하원·차말로 식량을 운반하는 나귀로 충당하였다. 이 조치가 그 이전 상황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다. 수나라가 서역의 땅을 점령한 후 서해(西海)·선선(鄯善)·차말 등 군을 설치한 후 전국의 죄인과 수졸을 배치하여 둔전을 열고 서방 여러 군(諸郡)의 군량을 운반하여 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⁷⁹⁾ 이오·하원·차말에 보낸 물자를 아마도 말로 실어날랐을 것이다. 수나라가 모두 241,840마리의 여덟 마리의 타마(八馱), 수송용 말의 부족분을 이오·하원·차말로 물자를 운송했던 이 말들로 보충하였으며, 대신 이오·하원·차말 지역으로 물자 운송 수송이 관중의 부자들로부터 징발한 나귀(驢)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무군 출신 백유망(백유사)⁸⁰⁾이 이끄는 노적(奴賊)의 무리들이 대업 9년 정월 전후 목마(牧馬)를 노략질하여 농우(隴右)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장군 범귀를 보내 토벌했지만 여러 해 동안 이기지 못했다.⁸¹⁾ 수나라 때의 목축을 담당하는 기관에 농우목(隴右牧), 원주양목(原州羊牧), 원주타우목(原州駝牛牧), 염주목감(鹽州牧監), 원천 12마목(苑川十二馬牧), 사원양목(沙苑羊牧)이 있었

78) 『隋書』卷24「食貨志」, 688쪽, “九年, 詔又調關中富人, 計其貲產出驢, 往伊吾·河源·且末運糧, 多者至數百頭, 每頭價至萬餘。”

79) 『隋書』卷24「食貨志」, 687쪽, “又於西域之地, 置西海·鄯善·且末等郡, 謫天下罪人, 配爲戍卒, 大開屯田, 發西方諸郡運糧以給之. 道里懸遠, 兼遇寇抄, 死亡相續.”

80) 『資治通鑑』에는 ‘白瑜娑’라고 표기되었다(『資治通鑑』卷182「隋紀6 煬帝大業九年正月丁丑條」, 5668쪽, “靈武賊帥白瑜娑劫掠牧馬, 北連突厥, 隴右多被其患, 謂之‘奴賊.’”).

81) 『隋書』卷4「煬帝紀」下 大業九年正月乙未條, 84쪽, “靈武白榆娑, 稱‘奴賊’, 劫掠牧馬, 北連突厥, 隴右多被其患, 遣將軍范貴討之, 連年不能剋.”

다. 이 가운데 농우목이 화류목(驪騮牧)과 24군 마목(馬牧), 여라목(驢騾牧) 등 많은 조직을 관할하였고⁸²⁾ 농우목, 원주양목, 원주타우목, 원천 12마목이 농우 지역에 속했으므로⁸³⁾ 백유망의 농우 지역 국영 목장 말 약탈이 수나라의 군사력에 큰 타격이었다. 따라서 부족분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612년 고구려 내부로 진격했던 수나라 병사 30만 5천 명 가운데 요동성에 도착한 병사가 2,700명에 불과하고 저장한 거만(巨萬)의 기계를 모두 잃어버렸다.⁸⁴⁾ 즉 302,300명의 병력 상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간 무기들도 잃었다. 호삼성주(胡三省注)에서 거만이 만만(萬萬)이라고 풀이하였다.⁸⁵⁾ 따라서 거만이 1억을 뜻하므로 무기의 가격이 1억 전이었다는 뜻이다. 전국의 백성을 모아 효과라는 군인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했을 것이며, 302,300명분의 무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할 무기도 만들었어야 했다. 사서에서 무기 제조 기사를 누락했음이 분명하다.

82) 『隋書』卷28 「百官志下, 784쪽, “隴右牧, 置總監·副監·丞, 以統畜牧. 其驪騮牧及二十四軍馬牧, 每牧置儀司及尉·大都督·帥都督等員. 驢騾牧, 置帥都督及尉. 原州羊牧, 置大都督并尉. 原州駝牛牧, 置尉. 又有皮毛監·副監及丞·錄事. 又鹽州牧監, 置監及副監, 置丞, 統諸羊牧, 牧置尉. 苑川十二馬牧, 每牧置大都督及尉各一人, 帥都督二人. 沙苑羊牧, 置尉二人.”

83) 原州는 隋煬帝 시기에 平涼郡으로 改稱하였다(『隋書』卷29 「地理志」上 雍州·平涼郡條細注, 812쪽, “舊置原州, 後周置總管府, 大業初府廢.”). 平涼郡은 黃河 상류에 위치하여 隴右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苑川은 西秦을 세운 乞伏部가 활동했던 지역이었다. 乞伏國仁의 선조 述延이 자리잡은 곳이었으며(『晉書』卷125 「乞伏國仁載記, 3114쪽, “祁聖死, 利那子述延立, 討鮮卑莫侯于苑川, 大破之, 降其眾二萬餘落, 因居苑川.”) 乞伏國仁은 前秦의 군주 苻登으로부터 苑川王에 봉해질 정도로(『晉書』卷125 「乞伏國仁載記, 3115쪽, “苻登遣使者署國仁使持節·大都督·都督雜夷諸軍事·大將軍·大單于·苑川王.”) 乞伏部の 핵심지역이었다. 西秦의 영토는 隴右 지역이었으므로 苑川 역시 隴右에 속한다.

84) 『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大業八年條, 5666쪽, “初, 九軍度遼, 凡三十萬五千, 及還至遼東城, 唯二千七百人, 資糧器械巨萬計, 失亡蕩盡.”

85) 『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大業八年條胡註, 5666쪽, “巨萬, 萬萬也.”

4. 군수 물자 수송 계획과 실상

양제가 1차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한 직후부터 다시 고구려 침공을 계획하였다. 대업 8년(612) 팔월에 여양·낙양·낙구·태원 등 창고의 곡식을 망해돈으로 운반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민부상서 번자개에게 탁군을 우수하도록 하였다.⁸⁶⁾ 여양창이 683년에 위주(衛州)에 설치되었다.⁸⁷⁾ 『수서』 「지리지」에 급군(汲郡) 여양현(黎陽縣)에 창고가 있었고 기록하였다.⁸⁸⁾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여양창(黎陽倉)이 하수(潢하)와 영제거(永濟渠) 사이에 있었으므로⁸⁹⁾ 여양창의 곡물을 영제거를 통해 배로 탁군까지 운반할 수 있었다. 낙양창이 사서에 보이지 않지만 대신 낙양 주변에 여러 창고가 존재한다. 『수서』 「지리지」에 따르면 하남군 언사현에 하양창이,⁹⁰⁾ 공현(鞏縣)에 홍락창이 있었다.⁹¹⁾ 또 양제가 대업 2년(606) 시월에 공현의 동남쪽의 원상(原上)에 둘레 20여 리의

86)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大業八年八月條, 5666쪽, “八月, 敕運黎陽·洛陽·洛口·太原等倉穀向望海頓, 使民部尚書樊子蓋留守涿郡.”

87) 『隋書』 卷24 「食貨志」, 686쪽, “開皇三年, 朝廷以京師倉廩尚虛, 議為水旱之備, 於是砥於蒲·陝·虢·熊·伊·洛·鄭·懷·邵·衛·汴·許·汝等水次十三州, 置募運米丁. 又於衛州置黎陽倉, 洛州置河陽倉, 陝州置常平倉, 華州置廣通倉, 轉相覆主.”

88) 『隋書』 卷30 「地理志」中 冀州汲郡黎陽縣條註, 848쪽, “後魏置黎陽郡, 後置黎州. 開皇初州郡並廢, 十六年又置黎州, 大業初罷. 有倉.” 衛州는 隋煬帝 때 汲郡으로 改稱되었다.

89)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五冊 隋唐五代十國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15-16쪽, 河北諸郡

90) 『隋書』 卷30 「地理志」中 豫州河南郡偃師縣條註, 834쪽, “舊廢, 開皇十六年置有關官. 有河陽倉.”

91) 『隋書』 卷30 「地理志」中 豫州河南郡鞏縣條註, 834쪽, “後齊廢, 開皇十六年復有興洛倉.”

창성(倉城)을 쌓고 8,000석을 저장할 수 있는 교 3,000개를 짚고 감관(監官)과 진병(鎭兵) 1천 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십이월에 낙양 북쪽 7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 회락창(回洛倉) 창성의 둘레가 10리였고 300개의 교(窖)를 팠다.⁹²⁾ 즉 낙양 주변에는 하양창·홍락창·낙구창·회락창 등 4개의 주요 창고가 있었다. 태원창이 당나라 대에 섬주(陝州) 섬현(陝縣)에 있었는데,⁹³⁾ 『수서』 「지리지」에 하남군 섬현에 상평창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⁹⁴⁾ 수대 하남군 섬현과 당대 섬주 섬현이 동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대에 상평창이 태원창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 호삼성이 망해돈이 요서군에 있다고 주를 달았다.⁹⁵⁾ 고조우가 『독사방여기요』 권37 「산동」8 요동도지휘사사광녕우둔위·망해돈조 세주에서 망해돈이 광녕우둔위(廣寧右屯衛)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⁹⁶⁾ 이 곳은 현재의 요녕성 금주시(錦州市)를 흐르는 대릉하(大凌河) 동쪽에 있었다. 이 견해를 수용한 『중국역사지도집』에 망해돈은 바다와 가까운 백랑수(白狼水) 하류에 있다고 표기되었다.⁹⁷⁾ 일단 낙양 주변의 하양창·홍락창·낙구창·회락창의 곡물을 배에 실려 낙수를 통해 황하 하류로 가서 형택현(滎澤縣)에서 영제거로 운

92) 『資治通鑑』 卷180 「隋紀」4 煬帝大業二年條, 5626쪽, “[十月]置洛口倉於鞏東南原上, 築倉城, 周回二十餘里, 穿三千窖, 窖容八千石以還, 置監官并鎭兵千人. 十二月, 置回洛倉於洛陽北七里, 倉城周回十里, 穿三百窖.”

93) 『元和郡縣圖志』(李吉甫撰, 賀次君點校, 中華書局, 2005) 卷6 「河南道」2 陝州觀察使陝州陝縣條, 157쪽, “太原倉, 在縣西南四里. 隋開皇二年置, 以其北臨焦水, 西俯大河, 地勢高平, 故謂之太原. 今倉實中, 周回六里.”

94) 『隋書』 卷30 「地理志」中 豫州河南郡陝縣條附注, 834쪽, “後魏置, 及置陝州·恒農郡. 後周又置滎郡. 開皇初郡並廢. 大業初州廢, 置弘農宮. 有常平倉·溫湯. 有砥柱.”

95)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大業八年八月條附注, 5666쪽, “望海頓, 當在遼西界.”

96) 『讀史方輿紀要』(顧祖禹撰, 賀次君·施和金點校, 中華書局, 2005) 卷37 「山東」8 遼東都督府軍使司廣寧右屯衛望海頓條附注, 1731쪽, “在衛西南. 隋大業八年, 伐高麗, 敗還, 敕運黎陽·洛口·太原等倉穀向望海頓. 圖再舉, 謂比.”

97)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五冊 隋唐五代十國時期, 19-20쪽, 遼東都都室韃鞬等部

반될 수 있었다. 다만 태원창, 즉 상평창의 곡물을 황하로 운반하기 쉽지 않았다. 위치상 수도 대흥성에 곡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던 태원창의 곡물을 망해돈으로 운반해야 했던 사실에서 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량 보급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군량 수송의 중심지가 여양창이 있는 여양이었다. 양제가 자신의 심복이었던 양소의 아들인 예부상서 초국공 양현감에게 여양에게 독운(督運), 즉 군량 운송의 감독을 맡겼다.⁹⁸⁾ 이때 유원(游元)이 여양의 군량 감독을 위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⁹⁹⁾ 이어서 요동 고성을 수리하여 군량을 저장하라고 지시하였다.¹⁰⁰⁾ 이때 이연이 회원진으로의 물자 수송을 감독하였다.¹⁰¹⁾

다음으로 군량 수송 부담을 덜기 위해 둔전을 실시하였다.

“또 여러 주(諸州)의 정(丁)을 징발하여 네 조로 나누어 번갈아 요서군 유성현의 영둔(營屯)에서 일하도록 했는데 왕래가 간고(艱苦)하였고 생업은 채길 수 없었다.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 도로의 남쪽이 끊어졌고, 농우의 목마가 모두 노적(奴賊)에게 약탈당했다. 양현감이 빈틈을 틈타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제가 요동(고구려의 영토를 가리킴-필자)에 있다가 양현감의 반란 소식을 듣고 고양군으로 돌아왔다.”¹⁰²⁾

98) 『隋書』 卷70 「楊玄感傳」, 1616쪽, “帝征遼東, 命玄感於黎陽督運”

99) 『隋書』 卷71 「誠節游元傳」, 1643-1644쪽, “九年, 奉使於黎陽督運, 楊玄感作逆, 乃謂元曰: ‘獨夫肆虐, 天下士大夫用塗地, 加以陷身絕域之所, 軍糧斷絕, 此亦天亡之時也, 我今親率義兵, 以誅無道, 卿意如何?’ 元正色答曰: ‘尊公荷國寵靈, 功參佐命, 高官重祿, 近古莫儔. 公之弟兄, 青紫交映, 當謂畢成盡節, 上答鴻恩, 豈意墳土未乾, 親圖反噬, 深為明公不取, 願思禍福之端, 僕有死而已, 不敢聞命.’ 玄感怒而囚之, 屢脅以兵, 竟不屈節, 於是害之.” 그러나 游元은 楊玄感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에 가담하라고 협박을 받았으나 거부하여 살해되었다.

100) 『資治通鑑』 卷182 「隋紀」6 煬帝大業九年正月丁丑條, 5668쪽, “脩遼東古城以貯軍糧”

101) 『舊唐書』 卷1 「高祖紀」, 2쪽, “九年, 遷衛尉少卿, 遼東之役, 督運於襄遼鎮, 及楊玄感反, 詔高祖弟瑒驍弘化郡, 兼知關右諸軍事”

102) 『隋書』 卷24 「食貨志」, 688쪽, “又發遼州丁, 分為四番, 於遼西柳城營屯, 往來艱苦, 生業

위의 인용문에서 여러 주의 정(丁)을 징발하여 네 조로 나누어 요서군 유성현의 영둔을 왕래하라는 명령이 주목된다. 이들의 파견 목적이 군수품의 운송 때문인지 둔수(屯戍)인지, 아니면 둔전 경작 때문인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수서』에서 서역 일대에 둔전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¹⁰³⁾ 고구려와의 국경 지대에서 둔전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서』 「양제기」에 양제의 재위 기간 평가 가운데 “옥문(玉門)과 유성 밖의 지역에서 둔전을 성대하게 일으켰다”¹⁰⁴⁾라는 기록이 있다. 옥문이 둔황에서 서역으로 가는 관문을 가리키며 유성이 영주의 치소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수서』 「식화지」에 보이는 서역뿐만 아니라 유성 밖, 즉 유성의 동쪽 지역에서 둔전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징발된 여러 주의 정(丁) 가운데 일부가 유성의 변방 군영으로 물자를 운반했지만 다른 일부가 둔전 경작을 통해 현지에서 곡물을 생산하려는 작업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송 계획과 달리 군량과 무기 운송이 쉽지 않았다. 제2차 고구려 원정도 농번기에 시작되었다. 양제가 대업 9년 정월 정축일(613. 1. 28.)에 백성을 소모하여 효과로 삼아 탁군에 모이라고 지시하였다.¹⁰⁵⁾ 양제가 삼월 무인일(3. 30)에 요동, 즉 고구려로 향했고 월왕(越王) 동(侗)과 민부상서 번자개에게 동도를 지키라고 지시하였다.¹⁰⁶⁾ 여양에 있던 예부상서 양현감이 유

盡罄。盜賊四起。道路南絕。隴右牧馬。盡為奴賊所掠。楊女感乘虛為亂。時帝在遼東。聞之。還歸于高陽郡。”

103) 『隋書』卷24 「食貨志」, 687쪽.

104)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十三年條, 94쪽, “盛興屯田於玉門·柳城之外.”

105)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正月丁丑條, 83쪽, “九年春正月丁丑, 徵天下兵。募民為驍果, 集于涿郡.”

106)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三月條, 84쪽, “戊寅, 幸遼東。以越王侗·民部尚書樊子蓋留守東都.”

월 을사일(613. 6. 25)에 반란을 일으켰고 병진일(7. 6)에 동도를 공격하였다. 무진일(7. 18)에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로 달아났고 경오일(7. 20)에 양제가 회군하였다. 양제는 우문술과 굴돌통을 보내 양현감을 토벌하라고 지시하자¹⁰⁷⁾ 우문술 등이 팔월 임인일(8. 21)에 문향에서 양현감의 반란군을 격파하고 참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¹⁰⁸⁾ 전쟁 준비를 지시한 정월부터 양현감의 반란이 평정된 팔월까지의 기간이 대부분 농번기였다. 따라서 군역과 요역에 동원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특히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난 황하 중하류 지역 백성들의 피해가 더욱 심했다.¹⁰⁹⁾

군역과 요역 부담의 증가와 더불어 이미 612년에 큰 가뭄과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히 산동 지역이 심하였다.¹¹⁰⁾ 산동 지역이 고구려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물자를 이동할 때 운송 인력을 우선 징발해야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에 불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군역과 요역을 부담할 성인 남성 수의 급감, 농번기의 백성들 피해, 가뭄과 전염병 등 때문에 물자 수

107)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六月條, 84쪽, “六月乙巳, 禮部尚書楊玄感反於黎陽 丙辰, 玄感逼東都 河南贊務裴弘策拒之, 反為賊所敗 戊辰, 兵部侍郎鞠政奔于高麗 庚午, 上班師 高麗犯後軍, 勅右武衛大將軍李景為後拒 遣左翊衛大將軍宇文述·左候衛將軍屈突通等馳道發兵, 以討玄感”

108)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八月壬寅條, 84쪽, “八月壬寅, 左翊衛大將軍宇文述等破楊玄感於閿鄉, 斬之 餘黨悉平.”

109) 唐令에 따르면, 屯田, 銅冶, 鐵作, 磚瓦, 運木을 제외한 요역에 四月부터 八月까지 동원할 수 없었다(『天一閣藏明抄本天聖令校證(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鈔本)』, 北京: 中華書局, 2006) 校錄本 賦役令卷第二十二 唐26條, 275쪽, “諸丁有所營造, 皆起八月一日從役, 四月一日以後享(停). 其營屯田·銅冶(冶)及鐵作·磚瓦·運木之處, 不在此例. 若量事要須, 不可停廢者, 臨時奏裁”). 이 조항이 隋令, 즉 隋의 법률을 계승한 것이라면 隋代에도 적용될 수 있다. 隋煬帝가 四月 이후에도 백성들을 물자 수송에 동원했다면, 隋煬帝는 해당 법조항을 어겼음이 분명하다.

110)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十一月甲申條, 83쪽, “是歲, 大旱, 疫, 人多死 山東尤甚”

송 환경이 나빠졌다. 게다가 물자 수송을 맡은 양현감이 고의로 물자 수송을 늦추었다.¹¹¹⁾ 여양에서 군량 수송을 감독한 양현감이 호분낭장 왕중백, 급군찬치 조희의 등과 모의하여 양제가 지휘하는 수나라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려는 수작을 부려 매년 군량 수송을 지체시키고 정해진 때에 출발시키지 않았다. 양제가 군량 수송을 독촉하자 양현감이 수로, 즉 영제거에 도적이 많다고 둘러댔다.¹¹²⁾ 가축의 부족으로 운송할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량 운송 책임을 맡은 양현감의 고의적인 군량 수송 지연 때문에 수나라 병사에 보급이 여의치 않고 식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구려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양제가 대업 9년 정월 정축일(613. 1. 28)에 전국의 백성을 징집하여 효과로 삼아 탁군에 모이게 명령하고¹¹³⁾ 요동 고성을 수리하여 군량을 저장하도록 하였다.¹¹⁴⁾ 양제가 사월 경오일(613. 5. 21)에 요수를 건넜고 우문술과 양의신에게 평양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¹¹⁵⁾ 이후 유월 을사일(613. 6. 25)에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나자 경오일(613. 7. 20)에 회군하였고 우문술과 굴돌통을 보내 양현감을 토벌하도록 하였다.¹¹⁶⁾ 이 일정에서 알

111) 『隋書』卷70 「楊玄感傳」, 1616쪽, “帝征遼東, 命玄感於黎陽督運, 于時百姓苦役, 天下思亂, 玄感參與武賁郎將王仲伯·汲郡贊治趙懷義等謀議, 欲令帝所軍取飢餓, 每為逗遛, 不時進發, 帝遇之, 遣使者逼促, 玄感揚言曰: ‘水路多盜賊, 不可前後而發。’”

112) 『隋書』卷70 「楊玄感傳」, 1619쪽, “帝征遼東, 命玄感於黎陽督運, 于時百姓苦役, 天下思亂, 玄感參與武賁郎將王仲伯·汲郡贊治趙懷義等謀議, 欲令帝所軍取飢餓, 每為逗遛, 不時進發, 帝遇之, 遣使者逼促, 玄感揚言曰: ‘水路多盜賊, 不可前後而發。’”

113)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正月條, 83-84쪽, “九年春正月丁丑, 徵天下兵, 募民為驍果, 集于涿郡。”

114) 『資治通鑑』卷182 「隋紀」6 煬帝大業九年正月丁丑條, 5668쪽, “脩遼東古城以貯軍糧。”

115)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四月條, 84쪽, “夏四月庚午, 車駕遼東, 壬申, 遣宇文述·楊義臣趣平壤。”

116)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六月條, 84쪽, “六月乙巳, 禮部尚書楊玄感反於黎陽, 丙辰, 玄感逼東都, 河南贊務裴弘策拒之, 反為賊所敗, 戊辰, 兵部侍郎隋暕政奔于高麗, 庚午, 上班師, 高麗已後軍, 勅右武衛大將軍李景為後拒, 遣左翊衛大將軍宇文述·左候衛將軍屈突通等馳專發兵, 以討玄感。”

수 있듯이 전쟁과 그 준비기간이 정월부터 유월까지였고, 양제가 사월부터 유월까지 고구려 침략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시기가 바로 농번기였다. 따라서 요서군 유성현으로 차출된 여러 주의 정(丁)은 농번기에 고향과 요서군을 왕복했으므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용문처럼 이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란에 참여한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1〉에 표기되지 않았지만 『자치통감』에서 대업 9년 삼월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이때 각지에서 봉기한 도적이 다음과 같다: 제군의 왕박과 맹양, 북해군의 곽방예, 청하군의 장금칭, 평원군의 학효덕, 하간군의 격겸, 발해군의 손선아이 각각 무리를 모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들의 무리는 많으면 10여만 인이었고 적은 무리는 수만 명이었으니 산동에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생각했다.”¹¹⁷⁾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도적의 우두머리 가운데 〈표 1〉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도 있으며 앞에서 언급된 7군 이외에 하간군이 추가되었다. 하간군에 평원·청하 2군과 함께 고구려로 군량을 운반하는 영제거가 지나갔다. 따라서 도적들이 창궐하는 지역이 당시 인구가 밀집하고 고구려와 가까워 주로 군량 수송에 인력이 동원되는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량 수송선을 차단할 수 있는 요지였다.

117) 『資治通鑑』卷182 「隋紀」6 楊帝大業九年三月戊寅條, 5669-5670쪽, “時所在盜起 齊郡王薄·孟讓·北海郭方預·清河張金稱·平原郝孝德·河間格謙·勃海孫宣雅各聚眾攻剽, 多者十餘萬, 少者數萬人, 山東苦之.”

5. 결론

양제의 제2차 고구려 침략이 살수 대첩의 대패 다음 해에 바로 감행되었지만 전쟁 준비는 수나라 병사들이 회군한 후 바로 시작되었다. 대업 8년 여양·낙양·낙구·태원 등 창고의 곡물을 망해돈으로 옮겼다. 613년에 백성을 소모(召募)하여 효과로 삼았다. 이는 살수 대첩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33여만 명의 병력을 보충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효과가 주로 관중 출신이 많았지만 영남과 광동에서 징발되기도 했고, 수나라의 남쪽 변경인 교지군, 즉 현재의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소모된 사람들도 있었다. 즉 효과도 사실상 전국에서 징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송 과정에서 죽거나 도망친 1,733,800명과 살수대첩에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337,300명을 제외하면 5,061,993구였다. 여기에 요역이나 조세 부담을 최소 1년 이상 면제받은 1,133,800구와 도적 34만여 명의 15.5%인 과정(課丁) 52,700명을 빼면 약 3,928,193구였다. 따라서 2차 고구려 원정 때도 병사와 궤운자를 포함하면 약 3,928,193구 가운데 2,604,900명을 추가로 동원해야 했다. 이는 조세·군역·요역을 부담할 수 있는 성인 남성(課丁)의 67.2%에 해당한다. 이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별동대 30만 5천 명 가운데 2,700명만 돌아왔으므로 302,300명이 가지고 간 여덟 마리의 타마(八馱), 즉 모두 241,840마리의 말과 무기를 새로 채워 넣어야 했다. 전자는 이오·하원·차말로 물자를 운송하던 말을 징발하여 제2차 고구려 원정군의 군수 물자

수송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2차 고구려 침략 전인 대업 9년 정월에 백유망(백유사)이 농우 지역의 목마를 약탈하였다. 이 지역이 말의 주요 사육지였기 때문에 수나라가 큰 타격을 받았다. 수 양제가 군량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전을 실시하는 보완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 고구려 침략 당시 수나라 병사들이 군마의 상실, 도적의 창궐, 군량 책임자 양현감의 군량 수송 작업 지연 등 군수 물자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와 싸웠다. 그러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키자 더 버티지 못하고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1. 사료

- 『隋書』(魏徵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3).
『舊唐書』(劉昫 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通典』(杜佑 撰, 王文錦 等 點校, 中華書局, 1988).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 賀次君 點校, 中華書局, 2005).
『冊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北京: 中華書局, 1956).
『讀史方輿紀要』(顧祖禹 撰, 賀次君·施和金 點校, 中華書局, 2005).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釘履課題組 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6).

2. 연구서

국문

서인한, 『동북아의 왕자를 꿈꾸다』, 플래닛미디어, 2009.

중문

-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五冊 隋唐·五代十國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張文才, 『隋代軍事史』(中國軍事通史 第九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3. 연구논문

국문

- 정동민, 「고구려와 수 전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8
최진열, 「648년 唐太宗의 高句麗 정복 준비와 그 실상」, 『군사연구』 156, 2023.
——,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 「612년 고수 전쟁 전후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물자 동원」, 『한국연구』 18, 2024.

중문

拜根興, 「墓誌所見隋煬帝親征高句麗」,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8-1, 2019.
 王錢, 「關於隋末農民大起義的發源地問題」, 『王錢隋唐史論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原載 『光明日報』 1953. 7.11).
 黃惠賢, 「隋末農民起義武裝淺析」, 『魏晉南北朝隋唐史研究與資料』,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10.

일문

谷川道雄, 「西魏·北周·隋·唐政權と府兵制」, 『増補 隋唐帝國形成史論』, 筑摩書房, 1998(原載 唐代史研究會 編, 『中國律令制の發展とその國家社會との關係-周邊諸之役の情況をふくんで-』, 汲古書院, 1986).
 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岩波講座世界歴史』 5, 1970.
 氣賀澤保規, 「驍果制考-隋煬帝期兵制の一側面-」,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舎, 1999(原載 「驍果制考-隋煬帝兵制の一側面-」, 『鷹陵史學』 11, 1986).

〈Abstract〉

The Goguryeo-Sui War in 613 and the mobilization of Sui soldiers and supplies

Choi, Jin-Yeoul

This paper analyzes the Goguryeo-Sui War in 613, that is, the preparations for the Second Goguryeo Invasion War of Yangdi, the second emperor of Sui dynasty and the tyrant emperor destroying the country by losing the War. The Goguryeo-Sui War in 613 began immediately after the Sui army withdrew following their defeat at the Battle of Salsu in 612. In the same year, grain from warehouses such as Liyang, Luoyang, Luokou, and Taiyuan was transferred to Wanghaidun. The loser emperor summoned the commoners and organized them into xiaoguo, in 613. During the Goguryeo-Sui War in 613, an additional 2,604,900 people had to be mobilized, including soldiers and transporters of military supplies, out of a total of approximately 3,928,193 people. This corresponds to 67.2% of adult males called keding(課丁) who can afford to pay taxes, military service, and corvée, and it was bound to be a huge burden on the people. Although the Sui government had to replenish 241,840 horses and weapons, it suffered a major blow, before the second invasion of Goguryeo, when Bai Yusha, one of thieves group, plundered the pasture horses in the Longyou region in January 613. In this way, during the Goguryeo-Sui War in 613, the Sui army

fought Goguryeo in a situation where they were unable to properly receive military supplies due to the loss of military horses, the prevalence of bandits, and the delay in the transport of military supplies by Yang Xuangan, the person in charge of military supplies. However, when Yang Xuangan rebelled, he could not hold out any longer and had no choice but to withdraw.

Keywords: The Goguryo-Sui War in 613, xiaoguo, batuo, Yang Xuangan's military supplies transport delay, Yang Xuangan's Rebellion

논문투고일 : 2025.04.08. 심사완료일 : 2025.05.26. 게재확정일 : 2025.06.04.

